

[가정의달특집2] 행복한 부부를 위한 다섯가지 비밀

권준 목사 / 1999

우리는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가 의사로부터 정기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생활도 건강한 지 때때로 정기검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해주고, 설거지, 빨래 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혹은 애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알기 위해서, 서로에게 더 잘 알려지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 받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식 때 '네' 라고 서약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행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 했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치 체중이 늘어나면 먹는 것을 조절하고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듯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특별한 조절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혼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젠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내가 먼저 조금만 변화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속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왜 그럴습니까?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 되어야 하며, 나 자신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두 사람이 힘써 노력하여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됨을 확인하며 사십시오

첫째로, 결혼의 소명인 하나됨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창조의 일을 진행해 오셨고 마침내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절정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지만 사랑으로 하나됨을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열등한 조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말의 의미는 남자가 홀로 할 수 없는 것

이 있는데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하나였다. 그녀는 너의 몸에서 나왔다. 이제 너는 분리되었고 둘이 되었는데 너의 할 일은 ‘하나됨’ 이다.”

이 아름다운 삶을 보십니까? 한 몸에서 나왔고 이제 다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제인간은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됨(Unity in Diversity), 바로 이것이 연합,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획일화가 아닌 서로 다른 둘이 조화롭게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양보하며 사십시오

둘째로, 양보하며 사십시오. 모든 결혼에는 갈등의 소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여러분 배우자와 찬성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도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은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진 문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양보가 필요합니다. “나의 휴일”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휴일을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족’이 무엇을 하며 이 귀중한 휴일을 보낼 것인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부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려고 할 때 시작도비니다. 부부의 최대의 불행,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더 나가서, “당신이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고전적인 차이는 바로 이기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로운가를 따지는 이 이기심을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셋째로,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부부 이혼의 문제 가운데 제일 많이 접수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 차이입니다.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점은 결혼생활에 균형을 가져다줍니다. 식사 때 젓가락을 사용할 때와 손가락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좋다고 두 개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젓가락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입

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가진 사람만이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한 사람은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여 질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많이 다르다면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맺어주신 하나님과 그렇게 날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넷째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행복한 부부는 대화가 가능한 부부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대화를 얼마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잤나, 밥 먹었어, 자자 등 일상적인 말 말고 서로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하십니까? 만일 마주 앉아서도 할 말이 없다면 그날의 QT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보십시오. 상대방이 듣고 변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나누어 보십시오.

대화가 안되는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사졌더라도 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쉽게 내뱉은 작은 언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시겠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살며 자기 성품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고, 아내 또한 그렇게 한다면 서로의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일치하고 하나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 반쪽의 구원을 최선의 목표로 두고 증보하며 섬겨서 마침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부의 주

님이 될 때 비로소 그 부부는 에덴을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